

研究論文

# ‘잖’ 구문에 대하여\*

배 주 채\*\*

I. 머리말	IV. ‘잖’ 구문의 통사적 성격
II. ‘-지’와 ‘않’의 문법범주	V. 마무리
III. ‘잖’ 구문의 형성	

## I. 머리말

### 1. 밝혀진 사실

부정의문문과 비슷해 보이는 “철수가 갔지 않아?” 또는 “철수가 갔잖아?”와 같은 특별한 구문(이하 ‘잖’ 구문이라 약칭)의 존재는 장석진(1973:119-21)에서 처

---

\* 본 연구는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교수, 국어학

1) 이러한 구문을 부르는 이름은 연구자에 따라 제각각이다.  
 부가의문문 : 장석진,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어학연구』, 제9권 제2호 별권 (1973);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 『언어』, 제9권 제2호 (1984).  
 확인의문문 또는 확인문 : 김동식,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호 (1980); 김동식, 「부정 아닌 부정」, 『언어』, 제6권 제2호 (1981).  
 장형부정 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을 위한 특수구문 :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제22권 제1호 (1986).  
 부정 융합의문문 : 구종남, 「국어 융합형 부가의문문의 구조와 의미」, 『언어』, 제17 권 제2 호 (1992).

음 언급되었다. 그 후 여러 논저에서 이 구문을 논의해 왔으나 연구사 정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이미 밝혀진 사실을 재론하거나 처음 제기하는 듯 표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우선 어떤 논저에서 어떤 사실을 처음 밝혔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 연구사 정리를 겸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장석진(1973)

① 부정의문문에서와 달리 선어말어미 ‘-았.’이 ‘-지’ 앞에 연결된다. 부정의문문 “존이 오지 않았습니까?”와 ‘잖’ 구문 “존이 왔지 않았습니까?”를 비교할 수 있다.

② 부정의문문의 ‘-지’ 뒤에는 보조사 ‘는, 도’ 등이 연결될 수 있으나, ‘잖’ 구문의 ‘-지’ 뒤에는 연결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존이 오지도 않았습니까?”, “존이 안 오지는 않았습니까?”는 부정의문문으로만 쓰인다<sup>2)</sup>

③ 부정 ‘잖’ 구문에는 긍정극어 ‘벌써’가 쓰이지 못하고 부정극어 ‘아직’이 쓰인다. 예를 들어 “\*존이 벌써 안 왔지 않았습니까?”는 비문이고 “존이 아직 안 왔지 않았습니까?”는 가능하다<sup>3)</sup>

#### (나) 장석진(1974)

이 중 ‘부가의문문’이 널리 쓰인다. 이 글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잖’ 구문이라고 부르겠다. ‘-지 않.’ 부분이 흔히 ‘-잖’으로 실현됨을 참작한 것이다

2) ‘잖’ 구문의 ‘-지’ 뒤에는 연결될 수 없으나 부정의문문의 ‘-지’ 뒤에 연결될 수 있는 요소로 보조사 ‘는, 도’ 외에 격조사 ‘를’을 들 수 있다. “존이 오지~~를~~오질 않았습니까?”와 같은 문장이 의미상 ‘잖’ 구문에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나 구조적으로는 ‘잖’ 구문이 아니라 부정의문문이다. 부정의문문의 ‘-지’ 뒤에 붙는 ‘를’이 격조사라면 ‘용언어간-자’가 특정한 격을 부여받아야 할 텐데 체언이 아니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를’은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선우용은 ‘를’을 격조사 용법과 보조사 용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격조사와 보조사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 요소로 보았다. 선우용, 「국어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제124호, 1994.

3) ‘아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극어가 아니다. 임흥빈, 「부정법, 『문법연구와 자료』 (1998), 559-560쪽. “\*영수가 아직 왔지 않았습니까?”가 비문인 것은 ‘아직’이 긍정 ‘잖’ 구문에 원래 못 쓰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과 ‘왔’의 상적 의미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긍정 ‘잖’ 구문에 ‘아직’이 쓰인 “영수가 아직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수가 아직 자지 않냐” 등은 비문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4.3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부정극어 ‘밖에’는 부정 ‘잖’ 구문에만 쓰이므로 장석진의 취지는 옳다고 할 수 있다. 장석진,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어학연구』, 제9권 제2호 별권 (1973).

④ 평서문은 불가능하고 의문문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제 말했지 않는다”,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다.”는 비문이고 “어제 말했지 않느냐?”,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는 가능하다.

⑤ 화자가 긍정의 명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했지 않소?”에 대한 대답으로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와 같은 형식만 가능하다.

(다) 김동식(1980)

⑥ 부정소 ‘아니’에만 관계된다.4)

⑦ 부정의문문에서는 선어말어미 ‘-겠’이 ‘않’ 뒤에 연결되는 반면, ‘잡’ 구문에서는 ‘-지’ 앞에 연결된다. “가만두면 죽겠지 않냐?”는 ‘잡’ 구문이고 “가만두면 죽지 않겠니?”는 부정의문문이다.5)

⑧ 부정의문문에서는 ‘알지 않’이 불가능한데 ‘잡’ 구문에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정의문문 “\*너는 알지 않았니?”는 비문이고 ‘잡’ 구문 “너는 알았지 않니?”는 가능하다.

(라) 김동식(1981)

⑨ 부정의문문에서는 ‘않냐’에 강세가 놓이고 그 앞에 휴지가 나타난다. ‘잡’ 구문에서는 ‘먹지’에 강세가 놓이고 그 앞에 휴지가 나타난다. 즉 부정의문문 “영이가 먹지 # 않냐?”와 ‘잡’ 구문 “영이가 # 먹지 않냐?”의 발음이 다르다(‘#’은 휴지, 고딕체는 강세를 표시).6)

⑩ 부정의문문에서는 지정사의 부정형 ‘이지 않’이 쓰이지 못하고 그 대신 ‘아

4) 이것은 ‘-지 않’ 대신 ‘-지 못하’나 ‘-지 말’이 ‘잡’ 구문에 쓰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장경기는 “\*영수는 갔지 못하니?”와 같은 예문을 들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장경기, 「국어의 부정 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제22권 제1호 (1986).

5) 장석진은 예문의 제시 없이 [의지]를 뜻하는 ‘-겠’이 ‘잡’ 구문의 ‘-지 앞이나’ ‘않’ 뒤에 모두 쓰이지 못한다고 했다. ‘잡’ 구문에 쓰이는 ‘-겠’은 [추측]만 나타난다.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 『언어』, 제9권 제2호 (1984). §2.2 참조

6) 김동식은 강세를 ‘힘쭈(focus)’이라 하고 휴지를 ‘췌(pause)’이라 했다. 김동식, 「부정 아닌 부정」, 『언어』, 제6권 제2호 (1981). ‘focus’는 흔히 ‘초점’이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음운론적인 용어가 아니다. 김동식이 의도했던 것은 강세(stress)인 것으로 보인다.

나.'가 쓰이는 반면, '잖' 구문에서는 '이지 않'이 쓰인다. 예를 들어 부정의문문 “\*영이는 학생이지 않았(었)니?”는 비문인데, '잖' 구문 “영이는 학생이(었)지 않니?”는 가능하다.

(마) 장석진(1984)

⑪ 부정의문문은 의문사가 쓰여 설명의문문이 될 수 있으나, '잖' 구문은 의문사가 쓰일 수 없어 판정의문문만 가능하다. '잖' 구문인 “누가 왔지 않아?”의 '누구'는 의문사가 아니고 부정대명사이다.

⑫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비중립적이어서 화자가 명제내용을 단언하며 청자의 '동의'를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부정의문문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비중립적일 때 화자가 명제내용을 단언하며 청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다.

(바) 장경기(1986)

⑬ 종결어미로 '-지'가 쓰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수는 때렸지 않지?”는 비문이다.

⑭ ‘이지 않’, ‘알지 않’이 명제내용을 긍정하여 전제하는 부정의문문에는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수는 학생이지 않았나?”와 “영수는 알지 않았나?”는 ‘영수가 학생임’과 ‘영수가 알았음’을 전제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성립한다.)

7) ⑭는 ⑧과 ⑩에 대한 보완이다. 이와 같이 긍정의 전제를 가진 부정의문문을 장석진은 ‘비중립적 부정의문문’, 장경기는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 이필영은 ‘본문전제 부정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 『언어』 제2권 제1호(1984);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제22권 제1호(1986); 이필영,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1995). 이들 문장에 강세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⑧ ⑩의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부정의문문과는 강세의 위치가 다르다.

- ㄱ) 영수는 학생이지 않았니?
  - ㄴ) 영수는 알지 않았니?
- ‘-지 않’ 부정형이 중립적인 부정의문문에는 쓰이지 못하지만 긍정의 전제를 가진 부정의문문에는 쓰일 수 있는 예로 ‘있지 않, 깨닫지 않’ 등을 더 들 수 있다.
- ㄷ) \*돈이 있지 않았니? (중립적)
  - ㄹ) 돈이 있지 않았니? (긍정 전제)
  - ㅁ) \*영수가 깨닫지 않았니? (중립적)

(사) 이필영(1995)

⑮ 부정의문문 ‘-지 않겠나’와 ‘잡’ 구문 ‘-겠지 않나’는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가진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넘어지지 않겠니!”보다 “넘어지겠잡니!”가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일까지야 철수가 끝내겠잡니!”보다 “내일까지야 철수가 끝내지 않겠니!”가 자연스럽다.

(아) 이영민(2001)

㉠ 선어말어미 ‘-으사’는 부정의문문에서 ‘-자’ 앞이나 ‘않’ 뒤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잡’ 구문에서는 ‘-지’ 앞에만 나타날 수 있다. ‘잡’ 구문에서 “선생님께서 가셨지 않나?”는 가능하지만 “\*선생님께서 갔지 않으시나?”, “\*선생님께서 가셨지 않으시나?”는 비문이다.8)

이상의 사실들 중 ①, ②, ⑥, ⑦, ⑧, ⑨, ⑩, ㉠은 ‘잡’ 구문의 서술어 이하의 구조가 다음과 같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 용언어간+(선어말어미)+-지 않-+의문형어미

‘-지 않’은 그 앞에 어떤 용언이 연결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고정된 구성이며 (⑥, ⑧, ⑩), 선어말어미는 ‘-자’ 앞에만 연결될 수 있고 (①, ⑦, ㉠), ‘-지’와 ‘않’은 휴지나 다른 형태소에 의해 분리될 수 없는 (②, ⑨) 것이다.

나머지 중에서 ④, ⑪은 ‘잡’ 구문이 판정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고, ③, ⑤, ⑫는 ‘잡’ 구문이 ‘않’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명제내용을 긍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⑬은 §4.5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⑭, ⑮에 대한 논의는 유보한다.

㉠ 영수가 깨닫지 않았나? (긍정 전체)  
구종남은 ‘있지 않, 깨닫지 않’이 부정평서문에는 못 쓰이지만 ‘잡’ 구문에는 쓰일 수 있다고 했으나 ㉠-㉡)과 같은 부정의문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종남, 「국어 융합형 부가의문문의 구조와 의미」, 『언어』, 제17권 제2호 (1992).

8) 장경기도 이 사실을 불완전하게 지적한 바 있다.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체」, 『어학연구』, 제22권 제1호 (1986).

## 2. 밝혀져야 할 문제

이상과 같이 ‘잖’ 구문에 대해 여러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아직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가) ‘-지’와 ‘않’의 문법범주는 무엇인가?
- (나) ‘잖’ 구문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인가?
- (다) ‘잖’ 구문의 통사적 성격은 어떠한가?
- (라) ‘잖’ 구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부정의문문과의 의미상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거나 논증과정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가)-(다)를 다루기로 한다. (라)도 마땅히 함께 다루어야 하나 논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 기회로 미룬다.

## II. ‘-지’와 ‘않-’의 문법범주

### 1. 세 가지 주장

‘-지’와 ‘않’은 ‘-잖’으로 축약될 수 있다. 비축약형 ‘-지 않’에서 ‘-지’의 문법범주를 논의한 연구도 있고 축약형 ‘-잖’의 문법범주를 논의한 연구도 있다. 기존의 주장은 셋으로 정리된다.<sup>9)</sup>

9) 서태룡처럼 종결어미 ‘-지’, 연결어미 ‘-자’, ‘잖’ 구문의 ‘-지’를 모두 같은 형태로 보는 태도는 인정하기 어렵다.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1988), 113~115 쪽. 한편 양인석은 1970년대의 부정문 논의에서 나온 적 있는 주장처럼 부정문의 연결어미 ‘-지’를 명사형어미 ‘-기’의 이형태로 보고, 나아가 ‘잖’ 구문의 ‘-지’도 같은 것으로 보았다. Yang In-Seok, “Korean Tag Questions,” *Linguistic Explorations*, 1993. 이 역시 논외로 한다.

- (가) ‘-지’는 종결어미이다. 화자가 명제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종결어미 ‘-지’와 같다. (김동식 1980, 1981, 이영민 2001)
- (나) ‘-지’는 연결어미이다. 장형부정문의 ‘-지’와 같다. (장경기 1986, 2001)<sup>10)</sup>
- (다) ‘-잖’은 선어말어미이다. (손세모돌 1999)

(가)와 (나)의 주장자들은 ‘-잖’을 ‘-자’와 ‘-않’이 단순히 음운론적 이유에서 축약된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다)를 주장하는 손세모돌(1999)는 비축약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잖’을 하나의 형태소로 본다

2. ‘-지’의 종결어미설과 연결어미설

‘-지’가 종결어미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선어말어미의 위치이다 선어말어미 ‘-으시-, -았-, -겠.’이 ‘-지’ 앞에 놓일 수 있는 점은 종결어미 ‘-지’와 같고 연결어미 ‘-지’와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 장경기(1986)은 ‘-았-, -겠.’이 ‘-지’ 앞에 놓이는 현상은 부정의문문이 “이차전제용법(secondary emotional question)”으로 쓰임을 나타내는, 즉 명제내용을 긍정하는 화자의 전제를 표현함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했다. 이러한 기이한 논리를 대신하여 장경기(2001)에서는 선어말어미 앞에 있던 ‘-지 않.’이 선어말어미 뒤로 이동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과 같은 이동 현상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 나는 순이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 나는 순이과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

---

10) ‘잖’ 구문을 부정의문문의 하나로 본 이필영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필영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1995). 또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으나 임홍빈은 장형부정문의 ‘-지’ 앞에 ‘-았.’이 크게 제약될 뿐 아주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잖’ 구문이 장형부정문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임홍빈 「부정법」, 『문법연구와 자료』(1998), 559쪽 607쪽 각주 15. ‘-지’를 연결어미로 본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연결어미 ‘-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형부정문에서 부정용언 앞에 오는 ‘-지’이다. 또 하나는 “철수는 애지 어른이 아니다”와 같은 문장에 쓰인 ‘-지’이다. 종결어미 ‘-지’는 어원적으로 후자와 관계가 있다. 후자는 중세에 ‘-디’였는데 종결어미 ‘-지’는 거기에서 온 것이다. 서정목, 「반말체’ 형태 ‘-지’의 형태소 확인」, 『이해속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1989). 전자는 중세에 ‘-디’였으며 현대국어의 종결어미 ‘-지’와는 관계가 없다. (나)의 주장자들은 ‘잖’ 구문의 ‘-지’를 전자와 같다고 본다

(3)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 그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이 이동 현상은 특정한 서술어가 상위문에 있을 때 하위문의 부정소가 상위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지 않’이 선어말어미 앞에서 선어말어미 뒤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장경기(2001)은 ‘-았, -겠’을 “보조술어”라고 불러 마치 서술어인 듯 기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용언어간을 하위문의 서술어로, ‘-았, -겠’을 상위문의 서술어로 보는 괴상한 문법기술로 들어서게 된다. 변형문법에서 이동변형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지 않’ 이동의 성격이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는 그러한 변형이 인정받기 어렵다.

‘-지 않’의 이동으로 생기는 큰 문제 하나는 1장의 ⑧, ⑩, ⑭와 관련된다.

(4) 철수가 가지 않았나? ⇒ 철수가 갔지 않나?

(5) 철수가 반장 아니었나? ⇒ 철수가 반장이었지 않나?

(6) 철수가 없지 않았나? ⇒ 철수가 있었지 않나?

(7) 철수가 모르지 않았나? ⇒ 철수가 알았지 않나?

(8) 철수가 깨닫지 못했나? ⇒ 철수가 깨달았지 않나?

장경기(2001)의 논리대로 (4)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정의문문에서 ‘잖’ 구문이 만들어진다면 (5)-(8)과 같은 과정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니다, 없다, 모르다, 깨닫지 못하다’를 각각 ‘이지 않다, 있지 않다, 알지 않다, 깨닫지 않다’로 바꾸어야 올바른 ‘잖’ 구문이 만들어질 텐데 과연 이런 변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sup>11)</sup>

또 ‘잖’ 구문이 부정의문문에서 온 것이라고 기술하면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 인지를 묻는 (9)와 같은 부정 설명의문문은 왜 대응하는 ‘잖’ 구문을 가지지 못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10)은 누군가가 왔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9)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9) 누가 오지 않았나? (부정 설명의문문)

11) ‘-지 않’의 이동으로써 ‘이지 않’의 실현을 설명하기 어려움은 이영민도 지적하고 있다. 이영민 「확인문 ‘-지’의 범주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제38호 (2001).

(10) 누가 왔지 않나? (‘잡’ 구문)

‘잡’ 구문의 ‘-자’가 종결어미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다음과 같은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1) 나도 10시까지는 도착하겠다.
- (12) 너도 10시까지는 도착하겠냐
- (13) 나도 10시까지는 도착하겠지.
- (14) 너도 10시까지는 도착하겠쟈
- (15) 나도 10시까지는 도착하겠지 않냐
- (16) 너도 10시까지는 도착하겠지 않냐

(11), (12)의 ‘-겠’은 [의지]와 [추측]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13), (14)의 ‘-겠’은 [의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추측]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종결어미 ‘-지’ 때문이다. ‘잡’ 구문인 (15), (16)의 ‘-겠’도 [추측]만 나타낼 수 있다. ‘잡’ 구문의 ‘-자’와 종결어미 ‘-자’가 그 앞에 연결되는 ‘-겠’의 의미 해석에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sup>12)</sup>

‘잡’ 구문의 ‘-자’가 연결어미일 가능성보다는 종결어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만 공식적으로 종결어미라고 보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잡’ 구문의 ‘-지’는 어느 경우에도 문장의 끝에 놓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끝에 놓이지 못하면서 종결어미 대접을 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잡’ 구문을 ‘싶다’ 구문이나 ‘보다’ 구문처럼 분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가의문문으로 분석하는 것이다.<sup>13)</sup>

- (17) 철수가 갔지 않냐? (‘잡’ 구문)
- (18) 철수가 갔지 싶다. (‘싶다’ 구문)

12) 궁극적으로는 ‘-잡’이 ‘-지 - 구나 - 네 와 같이 인식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이필영은 ‘잡’ 구문이 진정한 의문문(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정곡을 찌른 해명은 되지 못한다. 이필영,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1995), 각주 29.

13) ‘잡’ 구문을 부가의문문으로 볼 수 없음은 §4.2에서 논의한다.

(19) 날씨가 추워지나 보다. (‘보다’ 구문)

(20) 날씨가 추운가 보다. (‘보다’ 구문)

(17)은 (18)-(20)과 구조가 유사해 보이므로 ‘싶다, 보다’를 종결어미로 끝나는 절을 요구하는 형용사로 규정하듯이 ‘않다’ 역시 같은 성격의 형용사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싶다’나 ‘보다’의 앞에는 휴지가 놓일 수 있는 반면 ‘않다’ 앞에는 휴지가 놓일 수 없는 점이 다르다. 이와 함께 ‘-지’ 뒤에 보조사가 연결될 수 없는 점 선어말어미 ‘-으사, -았, -겠.’이 ‘-지’ 앞에만 오는 점은 맞춤법에 따라 ‘갔지 않나’와 같이 띄어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두 어절이 아니라 한 어절임을 뜻한다.<sup>14)</sup> 즉 ‘갔지 않나’와 ‘갔잖나’는 모음이 하나 더 있고 없는 따라서 음절수가 하나 더 많고 적은 음운론적인 차이만 가질 뿐 문법적으로는 똑같이 한 어절로 된 서술어이다. 그렇다면 ‘-지 않’ 또는 ‘-잖’은 하나의 굳어진 형태소로 보는 것이 옳다.<sup>15)</sup>

### 3. ‘-잖-’의 선어말어미설

‘-지 않’은 흔히 ‘-잖’으로 축약된다. 손세모달(1999)은 ‘-지 않’은 쓰이지 않고 ‘-잖’만 쓰인다고 했다. 비축약형 ‘-지 않’보다 축약형 ‘-잖’이 더 널리 쓰이

14) ‘보다’ 구문도 ‘잖’ 구문에 가까운 면이 있다. 첫째 ‘-은가(또는 ‘-나’)와 ‘보다’ 사이에 휴지가 놓일 수 있다고는 하나 휴지가 분명히 받음될수록 문장의 문법성이 떨어지며, 둘째, ‘-은가’ 뒤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은가’와 ‘보.’의 분리성은 아주 작다. 또 ‘보.’ 뒤에 선어말어미 ‘-으사, -았, -겠.’이 연결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은가 보다’가 전라방언과 경상방언에 ‘-응갑다’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사실과 함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라방언의 경우 ‘-응갑’을 융합에 의해 문법화된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을 만큼 ‘-은가’와 ‘보.’의 밀착도는 높아진 상태이다. 배주채, 「서남방언, 『문법연구와 자료』(1998), 912-915 쪽 김옥환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1), 50-51 쪽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은가’와 ‘보다’ 사이에 조그만 휴지나마 놓일 수 있는 점이 ‘잖’ 구문과 다르다고 본다

15) 이필영은 ‘-지 않’이 하나의 형태로 완전히 융합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 근거로 ‘-자’와 ‘않’ 사이에 보조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이필영,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1995). 그러나 그가 든 예문 “철수가 경력이 많자 ~~들~~가 ~~뒤?~~ ~~조치~~\*는 ~~않~~았습니까?”는 ‘잖’ 구문이 아니라 부정의문문이다.

는 것은 사실이다.<sup>16)</sup> 그러나 ‘-지 않.’이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 않.’은 문어적이고 ‘-잡.’은 구어적이며 장년층 이상에서는 두 형태를 혼용 하되 젊을수록 ‘-잡.’만 쓰는 비율이 높은 듯하다. 전체적으로 축약형 ‘-잡.’의 쓰임이 우세하므로 ‘-잡.’을 대표형을 삼기로 한다.<sup>17)</sup>

이제 ‘-잡.’의 문법범주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문제이다. 그 답은 손세모돌(1999)처럼 선어말어미로 보는 것밖에는 없다. 이지양(1993)이 ‘-잡.’을 선어말어미에 가깝다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선어말어미라고 규정하지 못한 것을 손세모돌(1999)이 선어말어미라고 못박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잡’ 구문의 종결어미가 의문형어미인데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이 된다
- (나) ‘-잡.’은 기본적으로 청자의 동의나 확인을 요구하는데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
- (다) 형태가 축약형 ‘-잡.’으로 고정되었다

이들은 ‘-잡.’이 선어말어미임을 증명한다기보다 ‘-잡.’이 부정문의 ‘-지 않.’과는 다른 하나의 형태소임을 증명한다. ‘-잡.’이 형태소 중에서도 선어말어미에 속한다는 증거는 ‘-잡.’이 용언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만 나타난다는 분포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sup>18)</sup>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순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장의

16) 정원수는 독백이나 감탄에 쓰인 ‘잡’ 구문의 비축약형 ‘-지 않.’은 무척 어색하다고 했다. 정원수, 「부정형태 ‘잡(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00호 (1998). 또 구종남은 ‘잡’ 구문의 종결형으로 ‘-지 않.’는 가능하나 ‘-지 않.’은 반드시 ‘-잡.’로만 실현된다고 보았다. 구종남, 「국어 용합형 부가어문의 구조와 의미」, 『언어』, 제17권 제2호 (1992).

17) 많은 연구자들이 비축약형 ‘-지 않.’을 대표형을 삼아 축약형 ‘-잡.’의 지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문어체 자료를 문법 연구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고 둘째는 ‘잡’ 구문과 부정의문문의 구조적 유사성을 전체하고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 ‘-잡.’을 ‘-지 않.’으로 분해하여 인식하게 되는 현상이다

18) 그러므로 ‘-잡.’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잡.’을 한 형태소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지 않.’이 줄어든 형태로 보더라도 국어사전에 실어야 한다. 그런데 『동아 새국어사전』에서만 ‘-잡.’이라는 표제어에 대해 “-지 아니하다의 준 말 [‘적지 아니하다→적잡다, ‘많지 아니하다→ 많잡다, ‘울지 아니하다→울잡다 따위.]”로 간단히 풀이한 예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동아출판사 편, 『동아 새국어사전』(1994).

①, ⑦, ⑧에서 본 바와 같이 선어말어미 ‘-으시-, -았-, -겠-’은 ‘-잖-’에 앞선다.<sup>19)</sup> 그러나 선어말어미 ‘-더-’는 ‘-잖-’ 뒤에 붙는다. (21)-(25)에서 ‘-디, -더냐, -던가, -습디까’에는 선어말어미 ‘-더-’가 들어 있다.

- (21) 철수가 잤잖다?
- (22) 철수가 잤잖더냐?
- (23) 철수가 잤잖던가?
- (24) 철수가 잤잖습디까?
- (25) 영수는 철수가 잤잖더냐고 대답했다.

장석진(1984)는 (26)-(28)를 들고 ‘-더-’가 ‘-잖-’의 앞이나 뒤에 쓰일 수 없다고 했다.

- (26) \*비가 왔됐지 않야?
- (27) \*비가 왔지 않데?
- (28) \*비가 오됐지 않야?

(26), (28)의 ‘왔됐지, 오됐지’의 ‘됐’은 ‘-더-+’-았-’으로 분석되는데 ‘-았-’과 ‘-더-’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부적당한 예이다.<sup>20)</sup> ‘왔됐지, 오됐지’는 ‘\*오더지, \*왔더지, \*왔엇더지, \*오졌더지, \*왔졌더지, \*왔엇졌더지’ 등으로 바뀌 그 문법성을 따져야 한다. 이들은 ‘-잖-’ 앞에 ‘-더-’가 연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 (27)을 (29)로 바뀌 이해하면 ‘-잖-’ 뒤에 ‘-더-’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29) 비가 왔지 않디?

19) 이지양은 ‘-잖-’과 선어말어미의 순서에 대해 ‘-잖-’이 ‘확안’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으시-’와 ‘-았-’ 뒤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1998), 187 쪽

20) ‘-더-+’-았-’이 옳은 배열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를 ‘-닷-’이 아닌 ‘-됐-’으로 잡을 이유가 없다

21) ‘-데-’는 ‘-더-’를 가진 평서형어미로 처리된다. 『표준국어대사전』 1537 쪽의 ‘-데’항 참조.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1999).

### III. ‘잖’ 구문의 형성

2장에서 ‘잖’ 구문의 ‘-잖’ 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보았는데 통시적으로는 ‘-잖’이 ‘-지’와 ‘-않’의 융합을 통해 문법화된 것이 틀림없다. ‘-잖’의 문법화를 논의한 것은 이지양(1993)이다. 그러나 이지양(1993)은 ‘-잖’이 아직 하나의 형태소로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또 ‘잖’ 구문의 형성과정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한편 장석진(1973), 구종남(1992), 이필영(1995)는 ‘잖’ 구문의 공식적인 도출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잖’의 문법화는 다루지 않았다. 기저구조에서 표면구조에 이르는 공식적인 도출과정은 이론적으로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 이들의 견해를 참고로 ‘잖’ 구문의 통시적인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장석진(1973:143 n.14)은 (30)이 (31)에서 ‘존이 왔’ 을 대응하는 ‘그렇’ 의 탈락을 통해 앞절에 부가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 (30) 존이 왔지 않아요
- (31) 존이 왔지(요), 그렇지 않아(요)?

장석진(1973:120)에서 제시한 의미구조 도식을 보면 ‘-지 않아요’의 ‘-지’를 연결어미로 간주한 듯하다. 즉 공식적으로 ‘잖’ 구문은 ‘존이 왔’과 같은 절에 ‘그렇지 않아요?’와 같은 의문문이 붙되 앞 절을 대응하는 ‘그렇’이 탈락하여 만들어진다고 본 것이다.<sup>22)</sup> 이 가설을 따르면 종결어미가 ‘-지’가 아니어도 ‘잖’ 구문은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앞 문장의 종결어미를 ‘-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면 (32)처럼 부자연스럽게 된다.

- (32) ?[철수가 왔{다, 어, 구나, 네}. 그렇지 않나?]

---

22) 비슷한 기술을 이필영에서도 볼 수 있다. 이필영,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1995). 다만 (29)에서 ‘그렇’ 자리에 앞 문장의 ‘존이 왔’이 복사된 “존이 왔지요 존이 왔지 않아요?”와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한 것이 다르다

따라서 ‘잖’ 구문은 앞 문장의 종결어미가 ‘-자 일 때만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낫다.’<sup>23)</sup>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구종남(1992)이다. 구종남(1992)은 (33)으로부터 부가의 문문 (34)가 형성되고 ‘그렇지’가 탈락됨으로써 (35)가 만들어지며 ‘-자’와 ‘않’이 융합되어 (36)이 도출된다고 했다.

- (33) 은주가 오늘 떠났지? 그렇지 않나?
- (34) 은주가 오늘 떠났지, 그렇지 않나?
- (35) 은주가 오늘 떠났지 않나?
- (36) 은주가 오늘 떠났잖나?

이와 같이 ‘잖’ 구문의 기저구조를 두 문장의 연결로 보는 것은 초기 변형문법적인 추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구종남(1992)의 가설을 통시적인 변화과정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고자 한다.

구종남(1992)의 가설에 대해 이지양(1993), 이필영(1995), 장경기(2001)의 비판이 쏟아졌다. 첫째, (37)-(39)에서 보듯이 ‘않’ 뒤에 ‘-겠’이 있는 경우에 ‘잖’ 구문은 만들어질 수 없다(이지양 1993/1998:186).

- (37) 영희가 왔지. 그렇지 않겠나?
- (38) ?영희가 왔지 않겠나?
- (39) ??영희가 왔잖겠나?

둘째, “영희가 왔지요. 그렇지 않아요?”와 같은 예에서 ‘잖’ 구문을 형성할 때는 앞 문장의 조사 ‘요’를 탈락시켜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이지양 1993/1998:186). 셋째, ‘그렇지’의 탈락 후에 일어나는 축약은 중간에 생략된 성분이 있을 때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언어보편적인 사실에 어긋난다(이지양 1993/1998:186). 넷째 ‘잖’ 구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영이가 오지 않았어요?”, “철수가 안 왔나?”,

23) 이지양은 (32)와 같은 문장연결이 적격하다고 보고 ‘-잖’에 들어 있는 ‘-자’가 종결어미에서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1998), 119쪽 각주 16.

“철수가 반장 아니니?” 등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이필영 1995). 다섯째 (33)의 앞 문장이 의문문이므로 (34)를 부가의문문으로 볼 수 없다(장경기 2001).

이 다섯 가지 비판이 정당한지 검토해 보자. 첫째, (38), (39)는 비문이 아니다 이들은 ‘-잖’ 앞에 ‘-았’이, ‘-잖’ 뒤에 ‘-겠’이 붙은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들이 (37)에서 발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우선 (37)의 의미는 (38), (39)와 상당히 다르다. (39)는 다음과 같은 문맥에 적절히 쓰이는 문장이다

(40) 영희가 모임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날 영희가 왔잖겠니? 그것도 10년 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말이야

(41) 숨은 쉬고 있나 보려고 가까이 가서 얼굴 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남자가 눈을 번쩍 뜨잖겠니?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지 뭐.

이와 같은 문맥에 쓰인 ‘-잖겠’은 ‘-겠잖’과는 물론 다르고 1장의 ⑮에서 본 이필영(1995)의 “내일까지야 철수가 끝내지 않겠니!”에서의 ‘-잖겠’과도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화자가 ‘철수가 끝내겠음’을 단언하고 있지만 (40), (41)에서는 ‘영희가 왔겠음’, ‘눈을 번쩍 뜨겠음’을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왔음’, ‘눈을 번쩍 떴음’을 단언하고 있는 점에 우선 차이가 있다

‘-잖겠’의 ‘-잖’이 선어말어미 ‘-잖’이라면 ‘-겠’과 ‘-잖’이 연결될 때 ‘-겠’이 앞서기도 하고 ‘-잖’이 앞서기도 한다는 선어말어미의 순서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겠잖’과 ‘-잖겠’이 쓰인 문장이 의미차이를 가지고 있고 ‘-겠잖’이 쓰인 문장의 의미가 ‘-잖’ 구문의 일반적인 의미해석 방법을 통해 규칙적으로 설명되고 ‘-겠잖’이 선어말어미의 순서도 잘 따르고 있으므로 ‘-겠잖’의 ‘-잖’을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잖겠’에서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는 ‘-잖겠’의 ‘-잖’을 역시 선어말어미로 보고 ‘-겠’과 ‘-잖’이 연결되는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15세기 국어의 ‘-술’이 ‘-으사’ 앞에 놓이다가 근대에 의미변화와 함께 ‘-으사’ 뒤로 옮겨간 데서 보듯이 선어말어미의 순서와 의미가 관련이 있다. 문제는 ‘-술’의 위치 변화가 통시적인데 ‘-겠’과 ‘-잖’의 순서 문제는 공시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잖겠’의 ‘-잖’이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장형부정의 ‘-지 않’이 축약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이 설명은 장형부정의 ‘-자’ 앞에 놓일 수 없는 ‘-었’이 ‘-잖겠’ 앞에 놓이는 이유를 밝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40, (41)을 ‘-잖’ 구문의 논의에서 일단 제외해 놓기로 한다. 또 ‘-잖겠’의 정체가 무엇으로 판가름 나든 ‘-겠잖’이 선어말어미 ‘-겠’과 선어말어미 ‘-잖’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태라는 사실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둘째, 조사 ‘요’를 가진 문장은 부가의문문 단계까지만 ‘-지요’를 유지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자’ 뒤의 ‘요’가 생략된다고 기술하면 된다 ‘-자’는 부가의문문 단계까지만 독립된 형태소이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형태소 ‘-잖’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간에 생략된 성분이 있으면 축약이 불가능한 것이 절대적인지는 국어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영이가 오지 않았어요?”, “철수가 안 왔나”, “철수가 반장 아니냐” 등의 부정의문문의 의미는 ‘잖’ 구문의 형성과정과 관계 없이 장석진(1984), 장경기(1986), 이필영(1995)에서 논의된 부정의문문의 일반적인 의미해석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34)의 본문은 의문문에서 온 것으로 판정된다. 종결어미 ‘-지’가 평서형어미로 쓰이면 화자가 명제내용이 참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그렇지 않나?’와 같이 명제내용이 참인지를 청자에게 새삼스럽게 묻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의문형어미 ‘-자’를 써서 청자가 명제내용이 참임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그 뒤에 ‘그렇지 않나?’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잖’ 구문은 기원적으로 ‘-자’ 의문문을 본문으로 하고 ‘그렇지 않나’를 꼬리로 한 부가의문문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드러나듯이 구종남(1992)의 도출과정을 통시적인 발달과정으로 상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이제 우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2) 1단계 : 철수가 왔지? 그렇지 않나?

(43) 2단계 : 철수가 왔지, 그렇지 않나?

- (44) 3단계 : 철수가 왔지 않나?
- (45) 4단계 : 철수가 왔잖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중남(1992)를 따르되 이 과정을 공식적인 도출과정으로 보지 않고 통시적인 변화과정으로 보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또 3단계와 4단계는 ‘-잖’의 형태만 비축약형과 축약형으로 다를 뿐이고 둘다 ‘잖’ 구문으로서 ‘-잖-’의 문법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점도 다르다. ‘왔지 않나 나’ ‘왔잖나 나’ 문법적으로 똑같이 ‘오-었-잖-나’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선어말어미 ‘-었-’과 ‘-졌-’은 각각 ‘-어 있-’과 ‘-게 했-’으로부터 문법화한 것이다. 둘 다 ‘있-’을 꼬리에 달았던 버릇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있-’이 동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은데’ 대신 ‘-는데’와만 결합하듯이 ‘-었-, -졌-’ 또한 어간이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관계 없이 ‘-는데’와만 결합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잖-’에서도 볼 수 있다. ‘-잖-’에 들어 있는 ‘않-’은 기원적으로 형용사이다. ‘그렇지 않-’의 ‘그렇-’이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용사 ‘않-’처럼 ‘-잖-’도 의문형어미와 결합할 때 ‘-는가’ 대신 ‘-은가’와만 어울린다<sup>24)</sup>

- (46) 꽃이 예쁘잖은가/\*예쁘잖는가?
- (47) 철수가 왔잖은가/\*왔잖는가?
- (48) 비가 오겠잖은가/\*오겠잖는가?

#### IV. ‘잖’ 구문의 통사적 성격

##### 1. ‘잖’ 구문의 구조

2장과 3장에서 ‘잖’ 구문의 ‘-잖-’이 종결어미 ‘-지’와 부정용언 ‘않-’의 연쇄로

---

24) 이영민은 “철수가 예뻐지 않는가?”, “철수가 갔지 않는가?”와 같이 ‘-잖-’ 뒤에는 항상 ‘-는가’만 붙는다고 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영민, 「확인문 ‘-지’의 범주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제38호 (2001).

부터 문법화된 선어말어미임을 논의했다. 이제 ‘잖’ 구문의 구조를 서술어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9) 용언어간+(-으시)+(-았)+(-겠)+-잖+(-다)+의문형어미

이것은 통사론적으로 그다지 특별한 구조가 아니다. 다른 구문과 비교하면 선어말어미의 자리에 ‘-잖’이 들어가 있고 종결어미로 의문형어미만 연결된다는 점이 특별할 뿐이다.

## 2. ‘잖’ 구문은 부가의문문인가?

장석진(1973, 1984)에서 ‘잖’ 구문을 부가의문문으로 규정한 이후<sup>25)</sup> 여러 연구들에서 ‘잖’ 구문을 ‘부가의문문’으로 불러 왔다. 그 중에는 ‘잖’ 구문을 명실상부한 부가의문문으로 본 예도 있고(구종남 1992, 양인석 1993, 김종현 2000 ㄱ, 2000 나), 부가의문문으로 보는 것을 유보하면서 편의상 ‘부가의문문’이라는 용어를 쓴 예도 있으며(이필영 1995), 부가의문문으로 보면서도 ‘확인문’이라는 다른 용어를 쓴 예도 있다(이영민 2001).

‘잖’ 구문이 의미상 영어의 부가의문문과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미상의 유사성이 통사적인 유사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sup>26)</sup> ‘잖’ 구문이 부가의문문이라면 본문과 꼬리가 어느 정도 분리성이 있어야 한다. 영어 부가의문문식의 표기를 따르면 ‘잖’ 구문은 (50)와 같이 적힐 수 있다.

(50) 철수가 갔지, 않니?

- 
- 25) 장석진은 ‘잖’ 구문을 ‘부가의문문’으로 부르기도 하고 장석진,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어학연구』, 제9권 제2호 별권 (1973);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 『언어』 제2권 제2호 (1984)], ‘부가의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의문문의 한 종류로 보기도 했다 장석진, 「보이나 안 들리는 너와 나」, 『어학연구』, 제10권 제2호 (1974).
- 26) 양인석과 김종현은 형식과 관계없이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잖’ 구문을 부가의문문으로 보고 있다. Yang, In-Seok, “Korean Tag Questions,” *Linguistic Explorations*, 1993; 김종현 「부가의문문의 발화 형식과 의미 기능」, 『담화와 인지』, 제7권 제1호 (2000); 김종현 「부가의문문 발화 행위에서 인식양태의 설정과 요청의 위계」, 『담화와 인지』, 제7권 제2호 (2000).

그러나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와 ‘않’ 사이에는 분리성이 전혀 없고 ‘-지’와 ‘않’이 한 형태소 ‘-잖’을 형성하고 있다<sup>27)</sup> ‘잖’ 구문은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시적 발달 과정에서 부가의문문을 거쳤을 뿐이다. 공시적으로는 ‘잖’ 구문이 더 이상 부가의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어에서 부가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일 것이다.<sup>28)</sup>

(51) 철수 너도 갔지 안 그래

(52) 철수 너도 갔지, 그렇지?

‘잖’ 구문이 의미상으로는 부가의문문과 유사하나 통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생각은 서정수(1994:332-7)에 가깝다. 거기에서는 의문문을 일반의문문, 확인의문문, 특수의문문으로 나누고 확인의문문을 다시 (가) “지” 확인 질문, (나) “[{있}지 않나]” 확인 질문, (다) 덧붙임 확인 질문으로 분류했다. (가), (나), (다)는 각각 ‘-지’ 의문문, ‘잖’ 구문, 부가의문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부가’라는 형식상의 개념과 ‘확인’이라는 의미상의 개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 3. ‘잖’ 구문과 부정의문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잖’ 구문은 선어말어미 ‘-잖’이 쓰인 구문으로 정의된다. ‘잖’ 구문은 부정의문문과 대립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잖’ 구문도 긍정 ‘잖’ 구문과 부정 ‘잖’ 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53) 철수가 갔잖아? (긍정 ‘잖’ 구문)

27) 양인석은 ‘잖’ 구문을 부가의문문의 하나로 보면서 줄곧 “철수가 웃지, 않아요?”처럼 적고 있다 Yang, In-Seok, “Korean Tag Questions,” *Linguistic Explorations*, 1993.

28) 장석진은 ‘잖’ 구문을 ‘전형적인 부가의문문’, (53), (54)를 ‘대용어 부가의문문’으로 불렀다.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 『언어』, 제9권 제2호(1984). 장경기와 이영민은 중앙어의 ‘잖’ 구문에 대응하는 경상방언의 “철수가 갔다 아이가?”, “철수가 갔다 아이고?”와 같은 문장을 부가의문문으로 보았다. 장경기, 「부가의문문의 보편문법과 경상도 방언」, 『인문논총』, 제17호(1999); 이영민, 「확인문 ‘-지’의 범주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제8호(2001). 이들도 부가의문문일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 (54) 철수가 안 갔잖아? (단형부정 ‘잖’ 구문)
- (55) 철수가 가지 않았잖아? (장형부정 ‘잖’ 구문)
- (56) 긍정의문문 + ‘-잖’ ⇒ 긍정 ‘잖’ 구문
- (57) 단형 부정의문문 + ‘-잖’ ⇒ 단형부정 ‘잖’ 구문
- (58) 장형 부정의문문 + ‘-잖’ ⇒ 장형부정 ‘잖’ 구문

긍정 ‘잖’ 구문이 긍정문이고 부정 ‘잖’ 구문이 부정문인 사실은 부정극어와의 공기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59)-(61)에서 보듯이 긍정 ‘잖’ 구문에는 부정극어 ‘밖에’가 나타날 수 없는 반면 부정 ‘잖’ 구문에는 나타날 수 있다

- (59) \*철수밖에 갔잖아? (긍정 ‘잖’ 구문)
- (60) 철수밖에 안 갔잖아? (단형부정 ‘잖’ 구문)
- (61) 철수밖에 가지 않았잖아? (장형부정 ‘잖’ 구문)

선어말어미 ‘-았’이 쓰인 구문을 ‘았’ 구문이라 부른다면 ‘았’ 구문도 긍정 ‘았’ 구문, 단형부정 ‘았’ 구문, 장형부정 ‘았’ 구문으로 쓰일 수 있는 점에서 ‘잖’ 구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았’ 구문 등과 달리 ‘잖’ 구문이 부정의문문과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의미 때문이다. 통사론적으로는 그 둘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기원적으로 ‘잖’ 구문에 ‘그렇지 않아?’와 같은 부정의문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 통시 통사론적으로는 둘이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 통사론적으로는 둘이 더 이상 한 식구가 아니다. 외모와 직업이 비슷한 먼 친척일 따름이다.

#### 4. ‘잖’ 구문은 왜 판정의문문 형식으로만 쓰이는가?

장석진(1984)에서 지적한 대로(1장의 ⑪ 참조) ‘잖’ 구문에는 의문사가 나타날 수 없어 ‘잖’ 구문은 항상 판정의문문 형식으로만 쓰인다.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잖’ 구문은 부가의문문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잖’ 구문의 종결 형식은 부가의문문의 꼬리에서 온 것이다. 부가의문문은 판정의문문 형식으로만 쓰인다. 화자가

알고 있는 명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부가의문문이기 때문이다. 부가의문문에 대해 청자는 ‘예 나’ 아니요 로 대답하게 된다. 따라서 ‘잖’ 구문도 관정의문문 형식으로만 쓰이게 된 것이다.

5. ‘잖’ 구문의 종결어미로 ‘-지’는 왜 못 쓰이는가?

장경기(1986)의 지적처럼(1장의 ⑬ 참조) ‘잖’ 구문의 종결어미로 ‘-지’는 쓰일 수 없다. ‘잖’ 구문의 종결어미는 의문형어미여야 하는데 의문형어미 ‘-자’는 거기에 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잖’ 구문의 기원적인 부가의문문의 꼬리가 ‘그렇지 않 + 의문형어미 인데 ‘그렇지 않지 는 꼬리가 될 수 없다.

(62) \*철수가 왔지, 그렇지 않자?

이 문장은 본문에서 철수가 왔음을 전제하고 꼬리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다. 이런 문장에서는 ‘잖’ 구문이 발달할 수 없다. 본문과 꼬리의 종결어미가 모두 ‘-지’이려면 다음과 같이 본문과 꼬리의 전제가 일치하는 “철수가 왔지, 그렇지?”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잖’의 의미와 ‘-자’의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잖’은 화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청자도 동의한다고 화자가 생각함을 나타낸다. 의문형어미 ‘-자’는 화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청자가 동의하는지 부인하는지 잘 모르므로 그 여부를 화자가 물음을 나타낸다. 이는 청자의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 서로 다름을 뜻한다. 그러므로 ‘-잖’ 과 ‘-자’ 는 같은 서술어의 어미부에서 공기할 수 없다.

V. 마무리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잡’ 구문의 ‘-지 않’ 또는 ‘-잡’은 선어말어미이다. ‘-잡’은 ‘-으사, -았, -겠’ 뒤, ‘-더’ 앞에 놓인다.
- (나) ‘잡’ 구문은 ‘-지’ 의문문에 ‘그렇지 않 + 의문형어미’의 문장이 연결된 형식으로부터 부가의문문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렇지’는 탈락하고 종결어미 ‘-지’와 ‘않’이 결합하여 선어말어미 ‘-잡’이 만들어졌다(‘-잡’의 문법화).
- (다) ‘잡’ 구문은 부가의문문으로부터 발달했으나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부가의문문이 아니다. 선어말어미 ‘-잡’이 쓰인 구문일 뿐이다.
- (라) ‘잡’ 구문은 형태 및 의미상의 유사성 때문에 부정의문문과 곧잘 비교되지만 통사론적으로는 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 (마) ‘잡’ 구문은 본문이 ‘-지’ 의문문인 부가의문문에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판정의문문 형식으로만 쓰이며 종결어미로 ‘-지’가 쓰이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잡’이 어엿한 선어말어미라는 점과 ‘잡’ 구문이 결코 부가의문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잡’ 구문과 부정의문문이 형태 및 의미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통사론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잡’ 구문의 형식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잡’ 구문의 의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선어말어미 ‘-잡’과 종결어미 ‘-지’가 의미론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잡’ 구문과 부정의문문의 의미상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들도 치밀한 논의를 기다리고 있고, ‘잡’ 구문이 문장종결법상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잡’ 구문을 확인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잡’ 구문의 문말억양과 강세, 휴지 등의 실현은 어떠한지, ‘-잡겠’의 특별한 용법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 자잘한 문제들도 우리 앞에 쌓여 있다. 이번에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중남, 「국어 융합형 부가의문문의 구조와 의미」 『언어』 제7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1992, 285~312쪽.
- 김동식,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제2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1980, 1~102쪽
- \_\_\_\_\_, 「부정 아닌 부정」 『언어』 제6권 제2호, 1981, 한국언어학회, 1981, 99~116쪽
- 김옥화,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종현, 「부가의문문의 발화 형식과 의미 기능」 『담화와 인지』 제7권 제2호, 담화와 인지학회 2000, 211~242쪽.
- \_\_\_\_\_, 「부가의문문 발화 행위에서 인식양태의 설정과 요청의 위계」 『담화와 인지』 제7권 제2호, 담화와 인지학회, 2000, 131~162쪽
- 배주채, 「서남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1998, 877~932쪽.
- 서정목, 「반말체 형태 ‘-자’의 형태소 확인」 『이혜숙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한신문화사 1989.
-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1994. [한양대출판원, 1996]
-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 탑출판사, 1998.
- 선우용, 「국어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그 특수조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제124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1994, 1~130쪽.
- 손세모들,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제33호, 국어학회, 1999, 213~240쪽
- 양인석[Yang, In-Seok], “Korean Tag Questions,” *Linguistic Explorations*, Hanshin Publishing Company, 1993, pp. 389~422.
- 이영민, 「확인문 ‘-자’의 범주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제38호, 국어학회, 2001, 241~269쪽
-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국어의 융합현상』, 서울: 태학사, 1998]
- 임홍빈, 「부정법」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1998, 551~620쪽.
- 이필영,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1995, 199~223쪽
-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제22권 제1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1986, 19~40쪽.
- 장경기, 「부가의문문의 보편문법과 경상도 방언」 『인문논총』 제17호, 울산대, 1999.
- \_\_\_\_\_, 「국어 부정의문문의 통사적 연구」 『언어』 제26권 제1호, 한국언어학회, 2000, 185~208쪽
- 장석진[Chang, Suk-Jin],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어학연구』 제9권 제2호 별권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3, 1~149쪽

- \_\_\_\_\_, 「보이나 안 들리는 너와 나」 『어학연구』 제10권 제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4, 259~277쪽. [장석진, 『화용론연구』(1985)에 재수록]
- \_\_\_\_\_, 「국어의 부가의문 : 형식과 기능」 『언어』 제9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1984. [장석진, 『화용론연구』(1985)에 재수록]
- \_\_\_\_\_, 『화용론연구』, 서울: 탐출판사, 1985.
- 정원수, 「부정형태 ‘잖(잖)’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00호, 국어국문학회, 1988, 283~294 쪽

## 주제어

잖구문, 부가의문문, 부정의문문